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 극심한 가뭄 우려에 따른 '선제적 가뭄대응' 총력

관내 저수율 상시 모니터링 및 농업용수 수리시설 사전 점검 완료

고흥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 농업인 피해 최소화 앞장

뉴스일자 : 2026년08월04일 21시21분



[GBS방송 이명수 본부장]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지사장 정찬조)는 이상기후 변화로 인해 빈번해지는 가뭄 피해 우려에 따른 '선제적 가뭄 대응 체제'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고흥지사는 현재 관내 주요 저수지의 저수율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용수 확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6.08.03.현재까지 고흥군 누적 강수량은 740mm로 평년 1,400mm대비 52%수준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과거 가뭄 취약 지역으로 꼽혔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비상 급수 계획을 수립했다. 현재 오마지구 대들보에 간이양수장을 설치하였고, 그 외에도 하상굴착 13개소, 간이양수장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용수공급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지역 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영농기 물 절약 홍보 현수막 활동도 병행하여 가뭄 위기를 민관이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다.

정찬조 고흥지사장은 “기후 위기로 인해 가뭄의 빈도와 강도가 점차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사후 대처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흥 지역 농업인들이 물 걱정 없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업용수 확보와 관리에 지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gbsnews.co.kr> 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